「낙화」 _ 이형기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綠陰)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꽃이 지는 자연의 변화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인간사를 중첩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 내고 이루게 되는 성숙에 관해 노래한 시이다. 꽃이 지고 나면 녹음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사랑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이별 또한 영혼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 1연: 때를 아는 이별의 아름다움
- 2연: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순간
- 3연: 결별이 주는 축복
- 4, 5연: 성숙을 위한 희생
- 6연: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 7연: 영혼의 성숙

✓ 주제 : 이별을 인내하는 데에서 오는 성숙

①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②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하롱하롱'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③ 1연에서는 '~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④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 표현에는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⑤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이라는 표현은 성숙이 점진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⑥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는 표현은 성숙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낸다.

⑦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처럼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한 맥락을 고려하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라는 시구는 꽃이 지는 모습으로도, 그리고 떠나는 사람의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겠군.

⑧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영혼의 성숙 가능성을 환기한 것은, '녹음'과 '열매'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적 리듬의 차원에서 낙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T H E - 깊 은 독 해]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가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도 사용되었다.) 이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의 제목을 고려하여 독해하면, 아마 이별은 낙화일 것이다. 이때 '가야할 때'는 이별과 죽음의 시간, 제목을 고려하면 꽃이 질 때를 의미할 것이다. '가는 이'는 떨어지는 꽃, '뒷모습'은 낙화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를 아름답다고 한 이유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치에 순응하는 태도에 대해 예찬하며, 성숙한 이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연 : 낙화의 아름다움

봄 한 철 /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봄에 격렬한 감정을 품었던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꽃이 떨어지는 모습과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이 동일시되고 있다. 이때 '봄 한 철'은 젊은 날을, '나의 사랑'은 꽃을 나타낸다.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는 표현은 제목인 낙화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격정을 인내'했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한껏 품었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2연 : 낙화의 상황

분분한 낙화 ……

→ 꽃이 풀풀 날리며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별을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낙화가 계속 되고 있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해당 구절로 작품의 배경을 가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나, 꽃이 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봄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결별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결별이 축복을 이룩한다고 하였으므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결별'은 낙화를, '축복'은 결실을 의미한다. 즉, 낙화를 통해 결실이 이루어지므로 축복이라고 한 것이다. 즉, 성숙한 만남을 위해서는 헤어짐이 필요하다는,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다. 이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이별이 주는 정신적 성숙을 말한다.

지금은 가야할 때

→ 이전과 달라진 상황 인식이 드러난다. 이별(낙화)의 당위성과 함께 이별, 즉 낙화를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3연 : 결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 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

→ '무성한 녹음'은 여름의 생명력을, '열매'와 '가을'은 결실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봄) → 여름 → 가을의 자연 섭리가 나타난다. 여기서 '열매'는 꽃이 지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영혼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낙화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때 '나의 청춘'은 꽃잎을 비유한 표현이다. 나의 청춘이 마치 꽃처럼 열매를 기약하며 죽는다는 의미로, 이별의 필연성이 드러난다. '꽃답게 죽는다'는 표현은 성숙을 위한 청춘의 희생, 결실을 위한 죽음 등을 의미하며, 해당 구절도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4-5연 : 낙화의 의미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 낙화를 통해 이별을 형상화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때 '섬세한 손길'은 낙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즉,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 여기서 '하롱하롱'은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어이다. 이러한 시어의 사용은 이별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구절은 낙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구절이다.

▶6연 : 낙화의 아름다운 장면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여기서 '나의 사랑'은 꽃, '나의 결별'은 낙화를 의미한다.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는 표현은 〈조금씩 끊임없이〉라는 뜻이다.

내 영혼의 슬픈 눈.

→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눈'은 이별을 통해 성숙이 이루어지지만, 이별로 인해 마음속 슬픔이 깊어지는 것도 어찌할 수 없음을 나타낸 시어이다. 성숙은 이별의 슬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또한, 본인 '영혼의 슬픈 눈'을 보고 있으므로, 해당 구절에서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연: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 자연물과 삶을 대응시켜(수록 〈보기〉에서는 이를 '자연물과 인간사의 중첩'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에서의 낙화를 삶에서의 결별로, 자연에서의 열매를 현실에서의 성숙한 영혼으로 대응시켰다.

→ '낙화', '결별', '지고 있다', '죽는다' 등의 하강적 시어를 사용하여 쓸쓸하고 안타까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롱하롱', '분분한'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샘터에 물 고인 듯'과 같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어들을 사용하여, 낙화의 정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개화-낙화-결실'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논리(정반합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개화'와 '낙화'는 대립적인 내용이며, 이를 통해 나온 '결실'은 바람직한 결과이므로 이 작품 속에는 변증법적 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말하는 해당 작품의 창작 과정

어느 날 내게는 문득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전에도 흔히 있던 일인데 그날의 그것은 작은 샘이면서 동시에 슬픔이 가득 어려 있는 눈의 이미지였다. 떠오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말하자면 우연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것은 시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곧 종이쪽지를 꺼내 '샘 = 슬픈 눈'이라고 메모를 해 놓고 역시 평소의 버릇대로 한동안 이리저리 생각을 굴렸다. 그러자 이윽고 떠오른 것이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는 구절이다. 마음에 드는 구절이었다. 성숙한 영혼의 샘터에 고이는 맑은 물은 승화된 고통의 표상이 아닌가. 눈은 그런 영혼의 창이다. 그 눈에는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디는 동안 느꼈던 갖가지 슬픔이 어려 있을 수밖에 없다. 대충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그 한 구절을 살리기 위해 쓴다고 쓴 시가 이 <낙화>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 들었다 해도 처음에 얻은 그 한 구절만으로는 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다른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에 잠긴 내가 한참 만에 찾아낸 것은 '낙화 속의 이별'이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발견이 우연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상 그 '낙화 속의 이별'은 그 무렵 내가 막연하게 품고 있던 감정의 한 갈래와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감정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나 한창 여자가 그리운 나이에 객지에서 혼자 고달프게 살다 보니 때때로 자기가 그런 실연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느 날 나는 자신의 상상적 실현을 꽃잎이 지고 있는 벚나무 아래서 그녀와 헤어진 아름다운 이별이었다고 역시 상상으로 미화해 본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낙화 속의 이별'이란 말의 발견은 여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일단 떠오른 그 말은 곧 새로운 연상 작용을 일으켰다. 그것은 낙화 자체가 바로 꽃과 꽃나무의 아름다운 이별이요, 또 장차 열매를 기약하는 값진 이별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한 연상이다. 나는 이 연상의 내용을 처음에 얻은 마음에 들었던 구절과 결합시켰다. 그랬더니 낙화의 이별의 고통이 인내를 통해 '슬픈 눈'을 가진 '성숙한 영혼'을 이루어 간다는 줄거리가 잡히게 된 것이다. 줄거리가 잡히면 시를 쓸 수 있다. '낙화'는 그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의외로 하룻밤 사이에 쓴 나로서는 예가 드문 속성의 작품이다. 속성으로 썼다 해도 쓰는 동안에 고심한 대목이 없을 수는 없다. 가장 큰 고심거리는 잡힌 그 시의 줄거리가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 '인내를 통한 고통의 승화'보다도 이별의 문제를 클로즈업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쓰다 보면 시는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의 표현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당초 의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잡힌 줄거리를 그냥 살려 나가기로 한 것이다.

- 이형기, "이형기 시인의 시 쓰기 강의"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남 [낙화를 관찰하는 이]
- 상황 : 낙화를 바라보며 결별을 통해 영혼 성숙이 이뤄짐을 깨달음
- 정서·태도 : 이별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임 [관조]

#같은 제목, 다른 작품 [조지훈의 '낙화]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 주제 : 낙화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

이 시에서 화자는 꽃이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대자연의 섭리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동틀 무렵, 별이 하나 둘 사라지고 귀촉도의 서러운 울음소리도 사라진 후에, 화자는 미닫이창에 은은히 붉게 비치는 꽃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꽃이 떨어지면서 드러내는 은은한 붉은빛은, 세상을 피해 꽃과 함께 살아가는 화자의 서글픔이 담겨 있는 빛깔이라고 할 수 있다. 낙화를 본 화자는 자신의 내면 상태로 시선을 돌린다. 세상을 피해 은둔자적 삶을 살아가는 화자는 꽃이 지는 광경을 통해 삶의 무상감과 절망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 이형기의 <낙화>가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사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다면, 조지훈의 <낙화>는 삶의 무상함과 비애감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 관 - 기 출 문 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기에
호흡은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손에 손을 잡고
볼에 볼을 문지르고
의지한 채 체온을 길이 간직하고픈 것은
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탓이리라.

산은
산대로 첩첩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 가듯이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 신석정, 「대춘부(待春賦)」-

(나)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안도현, 「간격」-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 현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③ 계절적 배경이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④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자연의 섭리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2. (가)와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다)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유사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와 (다)는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다)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⑤ (다)와 달리 (가)는 동일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다음은 (나)를 감상하기 위한 수행평가이다. 학생 답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수행평가

1학년 ○반 ○번 이름 : 김○○

[작품 특징] 시집 『적막강산』(1963)에 수록된 시이다. 이 시는 수용과 달관의 인생 태도를 바탕으로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세계를 수용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문항(배점)	답란
①	○ 제목 '낙화'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3점)	낙화는 결실을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
②	○ '봄'과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점)	봄과 가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아픔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 3연에서 두드러진 표현법을 찾아 설명하시오. (2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겉으로는 모순되나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④	○ 도치법이 사용된 연을 찾아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4점)	5연에서 '헤어지자'를 첫 행에 배치하여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6점)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신적 성숙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총점 : / 20점

4.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의 '가는 이'와 (다)의 '숲'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

② (나)의 '하롱하롱'과 (다)의 '울울창창'은 대상의 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③ (나)의 '슬픈 눈'과 (다)의 '나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손길'을 흔드는 모습에서, (다)는 '최대한 벌어진' 상황에서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꽃잎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의 화자는 '숲에 들어가' 보는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낙화」-

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① 제1연과 제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군.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③ 제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제6연의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⑤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AII-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①

① (가)는 '산'과 '물'의 섭리를 통해 봄이 오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나)는 낙화를 통해 이별이 주는 영혼의 성숙을, (다)는 나무를 통한 삶의 간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SCAN]

② (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애상적 정서가 보이나, (가), (다)는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

2.

[정답 SCAN] ②

② (가)에서는 3연과 4연에서 유사한 어구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 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다)에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 SCAN]

① (가)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보이지 않으며, (다)에서 화자는 멀리서 숲을 볼 때는 알지 못했던 나무의 간격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인 것이다.

3.

[정답 SCAN] ②

② (나)에서 봄과 가을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이별의 과정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별의 아픔이 심화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4.

[정답 SCAN] ⑤

⑤ (나)는 꽃잎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별이 영혼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다)는 불이 탄 숲 속에 들어가 보고서야 삶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정답 SCAN] ③

③ 이 시의 화자는 이별과 낙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별이 내적 성숙을 위한 계기임을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은 채 독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또한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① 이 시는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작품으로, 스스로를 조롱하는 자조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의미하는 '하롱하롱'이라는 의태어는 사용되었지만 의성어는 쓰이지 않았으며 시의 분위기 또한 진지하고 성찰적인 분위기로 볼 수 있다.

④ '분분한 낙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지만, 이는 꽃이 지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상의 불변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사랑, 나의 결별'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구를 찾을 수 있으며, '가야 할 때'라는 시구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정답 SCAN] ④

④ 지금 꽃이 지는 것, 청춘이 죽는 것은 여름의 녹음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은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실을 가져오듯 이별 역시 인생에서의 충실한 성장, 내적인 충만을 가져오기 위한 것임을 '가을'이라는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SCAN]

① ㉠은 이별의 의미,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있는 화자가 이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화자는 내적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가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이별에 대해 '격정을 인내한'이라 말하면서 이별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지나간 사랑'과 관련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은 꽃이 떨어진 후 여름이 되면 맞이할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낙화'가 끝이 아니고 여름과 가을로 이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이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으므로, 삶의 목표 상실이나 번민으로 볼 수 없다.

⑤ 이별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고 비유한 표현으로, 과거로의 회귀와 연결 지을 수는 없다.

7.

[정답 SCAN] ②

② '봄 한철'은 뒤에 이어지는 행을 볼 때, 격정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청춘기의 열정과 격정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꽃답게 죽는다'는 '낙화'와 '이별'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그 아름다움은 가을의 열매와 관련되며 이는 자아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오답 SCAN]

① '가야할 때'는 이별해야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이며 이는 '열매'나 '성숙'과 이어지게 되므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③ '결별'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별이 더 나은 발전이나 성숙과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낙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긍정적 자세를 드러냄과 동시에 <보기>와 연관 지으면 '이별'이 이전까지의 세계와 헤어지고 새로운 세계와 만나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임을 인식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눈'을 통해 성찰의 태도를, '슬픈'을 통해 시련에 부딪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별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련에 부딪혀 변화를 겪게 하고 새롭게 성숙하게 함을 말하고 있다.